

정부 문화재 관심 '뒷전'

내년예산 '제자리'... 관리·보수등 역부족 '불보듯'

정부의 내년도 문화재관련 예산도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문화재관리국에 따르면 12월2일까지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96년도 문화재관리국 예산은 8백74억원이며, 이중 문화재보수비는 4백5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문화재관리국 총예산 7백28억원, 문화재보수비 3백48억원에서 각각 20%(1백46억원), 30%(1백53억원)증가된 액수다.

그러나 96년도 문화재관리국 총예산의 증가율은 올해 18%에서 불과 2% 증가한 20%에 그쳐 내년도에 예정처럼 십각

한 예산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관리국의 예산은 크게 기관운영, 고도정비, 문화재보존, 공·농원정비의 네분야로 나누어 집행된다. 이중 불교문화재(국보 2백82건중 52%, 보물 1천2백10건중 64%를 점유)의 보존 관리를 포함하는 문화재보수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국비 예산으로 쓰여진다. 현재 국가 지정문화재의 경우 관리·보수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며 지방지정 문화재는 국비 25%, 지방비 75%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문화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미만이며 그중 문화재관련 예산은 0.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문화재관련 예산은 재정경제원이나 시·도의 심의과정에서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것으로 지적돼 삭감이나 유보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장과 건설일변도의 시기가 지나고 문화와 문화재의 가치가 재인식되는 시대를 맞아 예산 담당자들이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의 96, 97년도 중요 석·목조문화재 보

수계획에 따르면 보수대상인 문화재는 각각 67점, 43점이며 96년도에 석조(21건)·목조(35건)문화재 56점에 국비 40억9천5백만원, 97년도에 석조(46건)·목조(8건)문화재 54점에 국비 70억1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김재경 기자)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전국 주요사찰에 공문을 보내 건립기금모금을 실시, 도선사 낙산사 화계사 등 전국 10여곳의 사찰에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호국영령 천도법회 금강산 건봉사

금강산 건봉사(주지 현소스님)는 지난달 30일 지역민과 군장병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사찰에서 호국영령 위로 합동 천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현소스님은 "6.25로 산화한 모든 영혼들이 극락왕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다. 하지만 이같은 후원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집 공사를 완료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불교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인권위 장기수 복송회담 무산

불교측과의 만남은 월주스님 방북 무산이후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한편 인권위는 창립 6주년을 맞아 오는 20일 오후 6시 인권법당 김상사에서 김근태(국민회의 부총재)씨등을 초청해 창립기념식 및 강연회를 연다.



◇ 직지사 주지 녹원스님은 파계사 주지 도원스님과 함께 10월31일 연희동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위로 방문했다.

교계중진스님 盧씨 잇단방문

현정사상 최후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등 비자금 파문이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조계종 중진 월하스님의 언급과 중진스님들이 잇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방문해 세인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시찰은 세상사람 누구나 포용... 조계종 중진 월하스님은 10월 31일 동아일보 오명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기 보다는 뭔가 감추고 우물쭈물해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교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실천승가회(공동회장 지선·청화스님)와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님)는 지난달 27일과 31일 각각 성명을 통해 노태우씨의 구속수사, 5·18광주 학살자들에게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불련(회장 광상인)도 31일 녹원스님과 도원스님이 노태우씨를 방문한데 대해 환영을 표명하며 이어 1일에는 동국대에서 이들 스님을 방문 강력히 항의했다.

3.27구중법회 '공정 평가'

2천명 설문 자정능력 갖는 계기... 과정에는 이견

조계종 개혁종단의 단초를 마련했던 '3.27구중법회'의 역사적 의의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등 재평가되고 있다.

이는 개혁종단 출범 1주년을 맞아 '종단개혁과 불교지주화 계승대법회 행사추진위원회'가 전국의 스님과 재가신도 2천여명(응답 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불교적 관행'을 바꾸고 내부 구조를 개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자정능력을 갖는 좋은 계기였다'는 대답이 대다수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중법회의 목적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 60%가 '목적과 취지는 동의하나 폭력사태를 유발했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사

항이다'고 답변 반면에 20.2%만이 '종단개혁을 위한 구중의 선택이었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구중법회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총무원의 바람직한 대정부관계의 질문 사항에 58.7%가 '정부로부터 지주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 종단과 정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현 집행부의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 민주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도 비민주적이므로 소가 산재해 있다' 41.6% 등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우대사 문화재 봉행 서울 강남구 봉은사 남문에서 열린 대웅전에서 8쌍의 부부가 무로합동결혼식을 올리고 11월11일 1천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이번 문화재기에는 10월31일 대웅전에서 8쌍의 부부가 무로합동결혼식을 올리고 11월11일 1천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또한 봉은사는 경내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우리농산물 일일장터를 열었다.

경불련 회장에 설조스님·안동일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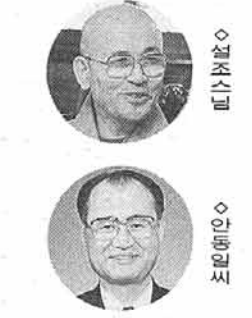
경불련 제3기 회장에 설조스님(불국사 주지)과 안동일 변호사가 선임됐다.

경불련은 지난 2일 조계사 총무원 1층 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공동대표에 수석부회장 중후스님(노적사 주지)등 40여명의 임원진을 확정 발표했다.

자비회집 회원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신임 회장 설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정의의 구현하는 것은 불교의 당연한 몫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일 변호사도 "경제정의 실현에 노력이나 전력을 다하겠다"며 경불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경불련은 이번 3기부터 보다 활발한 시민운동을 위해 2인 회장과 지도부사제를 도입하기로 규약을 개정했다.



"경승단 체계적 불법홍포 나선다"

협의회·진흥회 구성... 법요집·희보등 발간

법우회 명칭 개정 검토

경승협의회와 경승진흥회 구성을 통해 경승단이 체계적인 불법홍포에 나선다.

대한불교 경승단(단장 법타스님)은 지난달 31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승단장 회의에서 스님 위주의 경승협의회와 재가자 위주의 경승진흥회를 구성기로 결의했다.

포교인 관계자와 각 지단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승협의회와 경승진흥회 구성을 검토

승설별로 경승과 그 지역의 스님이, 경승진흥회는 일반인, 포교사등 재가자들을 포함시키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각 경승설별로 '불교신도회'를 구성기로 하고 현재 일부 경승설에서 운용되고 있는 '법우회'를 불교신도회로 명칭을 개정할 것을 검토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경찰공무원 포교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경승법요집과 경승활동지침서, 경승희보 발간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포교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승단은 △경승정원, 위·해학과 관련 정부와의 협의의 △포교원내 기초자료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승강할 주지의 경승 의무화 및 경승활동 연구 위원회 설치등을 골자로 한 경승단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 실행기로 했다.

국제학술심포지엄

한일 과거청산 운동본부

한일과거청산반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서문각)는 오는 8일 오전10시 세종문화회관대회의장에서 '한일합정과 과거청산의 과제'를 주제로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고은씨(시인·본지 논설고문)와 한상법교수(동국대)가 '한국과 일본, 무엇을 청산할 것인가' '한일합정의 문제점'을 각각 발표한다. 또 강만길교수(고려대)와 오다 마코토씨(일본 작가)가 '한일간 과거청산의 실제와 과제'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하여'를 각각 발표한다.

범종단 승가개혁 앞장

선우도량 18일 창립 5년 기념행사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현봉·해담스님)은 오는 18일 오후2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선문으로 본 한국불교근현대사'를 출간하는 등 창립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권리기자 12면)

개혁종단을 이끌어 내는데 선두역할을 했던 선우도량은 개혁종단의 출범과 함께 지난 3월 제8회 수련결사대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정체기를 벗어 나 새시대 불교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범종단 승가개혁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선우도량 2기는 1년여라는 짧은 시간에 불교하고 불교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선우도량이 내세우고 있는 올바른 승가상과 승종진작이 아직까지는 곳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선우도량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승가원' 승인 신청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센터로 운영 계획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이 사회복지시설 지원법인 '승가원' 승인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오는 8월 정식승인 될 것으로 전해지며,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등 보호를 요하는 주요 복지 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센터로 운영된다. 승가원은 또 전문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연구와 교육, 홍보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중앙승가대는 소책자마을에 270평 2층 규모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 올해 말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척중에 있다.

3천불문화 봉안식

대전불교중앙회관 10돌

대전불교중앙회관(관장 경원스님)이 지난 1일 동화관에서 지역불자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10주년 기념식 및 3천불 문화 봉안식'을 봉행했다.

또 대전불교중앙회관은 5일 지역불자들을 대상으로 보살계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어산 중요성 재인식

학교설립 세미나 개최

조계종에서 소홀히 여겨왔던

어산의 중요성을 재인식, 어산 학교설립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인목스님(영산재 전수자)은 지난 2일 '어산학교 설치방향과 교과 구성에 대하여' 주제로 한 발표에서 "어산의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불교의식으로서 맥을 이어가는 어산학교 설립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교육생 선발기준 범위, 교재, 교육도량, 기간 및 일정, 교수진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24일 장학금수여식

부산불교실업인회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정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국제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불교발전대강연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이날 강연회에는 근일스님(부석사 주지)과 송석구박사(동국대 총장)가 불교정토 실현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실업인회는 중·고·대학생 2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전인교육풍토 조성하자"

천진불회 '어린이포교위한 토론회' 개최

21세기 어린이교육 포교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천진불회(회장 덕진스님) 주관으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포교원·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첫 주제발표에 나선 황옥자교수(동국대 불교아동학)는 "아동교육이 전인교육의 형태를 벗어나 편중된 교육, 지식 제일주의 교육을 지양하는 교육풍토가 오늘날 아동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가한 화암스님(조계종 포교원 연구국장)은 "어린이포교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종단과 일선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촉구된다"고 강조했다.

창년지도자 연수교육

대불청 광주지구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회장 박태호)가 지난달 28-29일 광주 항림사에서 전국불교청년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신임회원관리반장 및 재정현황과 자립을 위한 방안 등 불청 조직 관리와 운영방법에 대한 다각적 방안이 토론했다.

특히 수련교육(수련회)에 대한 분과토론에서는 불교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프로그램의 개발과 회원확보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불교사 연구의지 미약"

양국불교는 과거 사회·반박등 헤프닝

"한일간에는 아직 양국이 남아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계 종교갈등 해소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이다.

이에 대해 호오조교수는 "일관과 일제시대에 대해 일본 종교인의 한 사람이든 참회한다"고 답변이라기 보다 사죄를 하고 있다.

최병현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역사적으로 친한 사이였지만 극한 감정으로 치달은 적도 많았다"며 "한일 양국의 진정한 관계수립을 위해서는 한일문제를 양국 불교지도자들이 앞장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진정한 한일불교의 친목과 교류를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불자들이 적극 나서자는 것이다.

이었던 논지를 피해간 느낌이다.

지난 77년부터 시작된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는 16회에 이른다. 원만한 기초는 다져지고 어느정도 상대에 대한 친목과 이해도 생겨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단순한 친목과 관광차원을 떠나 진정한 한일관계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최병현교수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미묘한 문제해 해서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불교'라는 공동의념으로 뭉쳐진 불교도들이 진실로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작은 해프닝으로만 지나치기엔 아쉬운 점이 느껴진다.

경주=이경숙 기자

낙동강 연등법회

2만명참석 성황

2002년 아시안게임 성공기회기원 제5회 낙동강 연등대회가 지난달 28일 낙동강 하구인 울주도에서 2만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